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43호 [루체 제 25852호] 주제 106 (2017)년 12월 9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시었다

반만년역사의 속원을 이루며 이 조선의 강대한 힘이 온 세계를 진감한 《11월대사변》의 장엄한 피성으로 우리 인민의 신심과 환희, 사회주의강대국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은 우주만리에 닿고 우리 조국의 역센 위상은 장엄무쌍한 백두산의 모습으로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용수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조용원동지, 조선로동당 광강도위원회 위원장 리상원동지, 삼지연군위원회 위원장 양명철동지, 국무위원회 국장 마원춘동지가 동행하였다.

나라의 일만산악을 거느린 조종의 산 백두산은 그 웅장장중한 뒤편에 백설을 흘날리며 자기의 위대한 주인을 또다시 맞이한 기쁨으로 영묘한 정기를 내뿜고있었다.

산같이 쌓인 강설을 헤치고 찾아오신 최고령도자동지를 맞이한 백두산은 눈보라치는 12월에 아직 그 누구도 올라와보지 못한 백두산정점에까지 오르신 그이앞에 만년강설을 이고 솟아있는 송엄한 자태를 한껏 드러내며 엄동설한에 성산이



사적비와 교양마당을 혁명의 성산의 품격에 어울리게 더 잘 꾸리며 위대한 장군님의 권령 《혁명의 성산 백두산》의 글밭을 어는데, 어디서 보아도 가장 잘 보일수 있도록 무게 있고 정중하게 더 잘 모셔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백두산을 찾아오는 답사자들의 편의를 위해 백두역 주변에 답사자려판을 새로 잘 건설하며 백두산의 전경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여러 장소에서 사진도 찍고 휴식을 할수 있도록 편리한 시설들도 잘 꾸며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천하를 굽어보는 백두산에는 이 땅에 들어오는 온갖 역풍을 백두산비람으로 산산이 부서버리고 력사의 흐름을 정의와 전리의 한길로 주도해가시는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따라 나가는 영웅조선의 앞길을 막을 힘은 이 행성에 없다는 승리의 최열이 끓어 번지고있었으며 백두의 해돋이마냥 밝고 창창한 눈부신 조선의 미래가 빛받치고있었다.

만난을 과감히 뚫고 사회주의승리의 진군로를 힘차게 열어가시는 철세의 영웅, 민족의 위대한 은인이신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은동지께서 천년달인 12월에 백두산정에 오르시어 새기신 뜻깊은 자국은 우리 조국을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으로 더 높이 떠올릴 원대한 용지와 주체조선의 앞길에 최후승리의 퍼명을 앞당겨 오신 역사적인 행보로 빛을 뿌린것이다.

본사정치보도반

생겨 처음 보는 류달리 폐정한 날씨를 펼치었다.

위대한 조선의 《11월대사변》을 이루시고 백두산을 찾으신 그이를 우러러 천변만화의 조화를 부린다는 천지의 호신도 천기를 다스리시는 최세의 천출명장을 모신 감격을 간직하듯 겨울처럼 맑고 푸른 물결에 기쁨으로 영묘한 정기를 내뿜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장군님마루에 거연히 서시어 억념 드느니 않는 백두의 신념과 의지로 순간도 굴함없이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빛나게 실현해오신 격동의 나날들을 감회깊이

회억하시며 장공을 지뵈고 높이 솟은 아아한 절벽들과 눈부시게 아득한 전리수해를 이듬으로 정경계 바라보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백두산에 자주 올라와보았지만 오늘처럼 한겨울에 봄날에도 보기 드문 좋은 날씨는 처음이라고, 어쩌나 날씨가 맑은지 천지호반의 봉우리들이 눈앞에 가까이 다가선듯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고 말씀하시었다.

그이의 안광에는 백두산의 장엄한 기상에서 모질게 광란하는 행성의 어지러운 바람에도 흔들림없이 푸르싱싱한 기쁨으로 용감무쌍히 전진하는 사회주의강대국의 모습을 안아보시는 천출위원의 송엄한 빛깔이 뜨겁게 흐르고있었다.

언제나 백전백승의 의지를 안겨주며 그 어떤 역경도 순경으로 만드는 영웅적배신을 키워주는 기적과 행운의 성산 백두산에는 무한한 탄력과 배짱을 지니시고 오늘 승리로 우리 혁명을 역세게 이끌어오신 천하제일명장의 천실적기상이 뜨겁게 넘쳐흘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생애가 깃들여 있고 필승불패하는 조선의 정신적기둥이며 백질불굴하는 사상적힘의 뿌리인 백두성산을 혁명전봉교양의 거점으로 더 잘 꾸리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백두산

따라 나가는 영웅조선의 앞길을 막을 힘은 이 행성에 없다는 승리의 최열이 끓어 번지고있었으며 백두의 해돋이마냥 밝고 창창한 눈부신 조선의 미래가 빛받치고있었다.

만난을 과감히 뚫고 사회주의승리의 진군로를 힘차게 열어가시는 철세의 영웅, 민족의 위대한 은인이신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은동지께서 천년달인 12월에 백두산정에 오르시어 새기신 뜻깊은 자국은 우리 조국을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으로 더 높이 떠올릴 원대한 용지와 주체조선의 앞길에 최후승리의 퍼명을 앞당겨 오신 역사적인 행보로 빛을 뿌린것이다.

본사정치보도반

